

길이 빛나라 삼지연의 강행군 길이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리움의 12월을 앞두고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삼지연을 찾으신 소식은 지금도 온 나라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이 나라의 첫머리 립동보다 앞서 내리고 강산을 열구는 한해의 강추위도 제일먼저 찾아오는 여기 백두산기슭 삼지연군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를 접하여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던 우리 군대와 인민인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거룩한 발자취를 마음속으로 따라결으며 수평결사옹위의 총대를 흐르며 지게 들어잡고 병사들과 나란히 경계근무를 선 최전선부대의 지휘관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노래 《블라디는 소련의 신물로 심장의 박동을 울리던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백두의 높이 빛날치는 그이의 삼지연강행군길을 따라가고있다.

말적의 총창을 여백에 비껴든 최정예혁명군을 거느리시고 모진 광풍을 맞받아나아가시듯 웅장한 백두밀림의 눈보라길을 앞장서 헤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삼지연행로, 그것은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어머니장군님의 유혼을 받들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이끌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최후승리를 위하여 이룩할 신적불멸의 의지를 격어아로선길 강철의 명장의 신념의 강행군길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상에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우리 조국력사에 수놓아진 절세의 위인들의 강행군길은 어느 것이나 백두산과 잇닿아있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도 백두산으로 향하는 전진미담의 힘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심포 헤치신 강계의 눈보라길이며 삼북철강행군도 백두산을 마음에 안으시고 단행하신 영웅사사지형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백두의 행군길을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꿋없이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의지가 그이의 주제 102(2013)년 삼지연강행군길에 그대로

어려있다. 단순히 북방의 한계 군에 대한 이례적인 현지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두산을 찾아가시는 길이였다.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걸으신 그 길은 결코 험한 길이 아니었다.

강산같이 내려쬐인 눈을 헤리물 쫓고 벼속까지 스며드는 모진 추위가 대지를 땀방 얼구었다. 때없이 몰아치는 사나운 눈보라며 아슬아슬한 위험이 뒤따르던 겨울같은 빙설길, 분, 초로 쪼개가시면서 진행하신 수많은 단위를 대한 현지지도...

말그대로 강행군이였다. 누구나 피눈물의 12월을 앞두고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총정의 마음속에서 지나온 한해에 대한 결속준비를 서두르고있던 때 장군님의 진신, 제자로서 어떻게 수평결사옹위의 12월, 맹세와 실천의 12월을 맞이하고 빛내야 하는가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삼지연 강행군 길은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12월을 마음에 안고 헤치신 고결한 총정의 행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의 뜻으로 호른 격동적인 주제 102(2013)년 사연깊은 삼지연의 강행군길에 담겨져있었고 장군님께 드리는 승리의 보고가 그 거룩한 자욱우에 어려있었다.

해해에 즈음하여 어머니장군님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제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식 보도된 것만 해도 190여차나 되는 눈부신 혁명활동을 벌리시며 조국방방 방방곡곡에 수놓으신 강행군사연들을 삼지연의 강행군자욱들이 다 말해준다. 전승 60돐과 공화국 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한 인민사랑의 수많은 창조물들이 어떤 위대한 사랑속에 일떠섰으며 수백개의 금메달로 주제조선의 위용을 떨친 우리 체육인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품에 안겨 복된 삶을 누리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머니장군님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시며 돌아보신 삼지연군의 현지지도단위들마다에서 승업히 울리고있다.

어쩌하여 우리 원수님 좋은 날에 오시여도 되시만큼 굳이 백두산바람을 맞으며 삼지연강행군길을 단행하시었다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장을 땀방 두드린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어져진다! 바로 그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의 주제 102(2013)년 삼지연 강행군길에서 용용히 백박친것은 혁명의 붉은기 높이 백두의 혁명전통,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꿋없이 계승발전시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백두산장군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였다.

조선혁명이 년대를 이어가며 순결하게 고수하는 이 즐거운 피즐기, 주체의 혈통이야말로 강성국가건설에 활력을 부여주는 삶과 투쟁의 원동기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이 귀중한 교범이다. 항일혁명투쟁을 책에서 배운 세대들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주인공, 주력군을 이룬 오늘의 강성국가건설대진에서 그 진리성과 의의가 더더욱 부각되는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만년보인것이다.

대원수님들께서 혁명과 건설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조선혁명의 만년재보로 여기시기에 그것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에서 단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는것이다.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으시였던 원수 없는 그날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하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던 백두산장군님의 모습 그대로 군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부주제 조각군상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증이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일떠세워주신 삼지연대기념비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케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주제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심오한 사상에술적형상으로 보여준 영웅사사지화폭이라고 하시면서 대로천 박물관이 불수록 장관이리고, 그림처럼 황홀하고도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격정에 젖으신 음성에서는 어머니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에 대한 다감없는 정성이 경건히 울리고있다.

아 마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과 더불어 삼지연군적의 역사 시작되던 50여년 전 그날의 잊지 못할 사연도 소중히 추억하시었으리랴.

주제 45(1956)년, 참으로 준엄한 해였다. 밖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겠다고 날치고 안에서 중과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총리대기리면서 혁명전통을 거세 말살하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애를 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보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섰던 1960년대,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이제는 혁명을 배신한자들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삼지연의 강행군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뿜어진것도 바로 이런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붉은기를 혁명과 더불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업하고도 거룩하신 모습으로

보신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것을 붉은기를 수호하고 영원히 빛내이는 성스러운 위업으로 심장이 간직하시였다.

붉은기는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의 상징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혁명과 건설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조선혁명의 만년재보로 여기시기에 그것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에서 단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는것이다.

삼지연대기념비를 찾으시였던 원수 없는 그날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하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던 백두산장군님의 모습 그대로 군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부주제 조각군상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증이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일떠세워주신 삼지연대기념비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케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주제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심오한 사상에술적형상으로 보여준 영웅사사지화폭이라고 하시면서 대로천 박물관이 불수록 장관이리고, 그림처럼 황홀하고도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격정에 젖으신 음성에서는 어머니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에 대한 다감없는 정성이 경건히 울리고있다.

아 마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과 더불어 삼지연군적의 역사 시작되던 50여년 전 그날의 잊지 못할 사연도 소중히 추억하시었으리랴.

주제 45(1956)년, 참으로 준엄한 해였다. 밖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겠다고 날치고 안에서 중과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총리대기리면서 혁명전통을 거세 말살하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애를 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보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섰던 1960년대,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이제는 혁명을 배신한자들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삼지연의 강행군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뿜어진것도 바로 이런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붉은기를 혁명과 더불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업하고도 거룩하신 모습으로

수호하고 빛내일 력사의 선인이 울려 퍼지고 혁명의 붉은기를 날리며 백두산지구에도 보부당당히 나아가는 발구름소리가 항일전구를 진감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10대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신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였다.

백두산지구에서의 첫 답사행군, 그것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명장의 담력과 슬기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 사면이 내놓으실수 있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의 분출이었으며 혁명의 배신자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천둥이었다.

그 나날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군 읍소제지의 소박한 귀틀집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립산마을사람들과 밤길도록 이야기를 나누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삼지연지구는 앞으로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될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귀틀집은 찾아볼수 없고 여기에 세상에 없는 훌륭한 도사가 일떠서게 될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약속합니다. ...

항일의 혁명전통이 맥맥히 흐르는 백두대지에서 불속 솟아오른듯 한 오글의 희한한 삼지연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약속은 사실이라 는것을 생동하게 증명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 주체의 혈통의 영원불멸성을 상징하며 대로천박물관으로 우뚝 솟아난 삼지연대기념비, 이제로는 못나무거리, 마가목거리, 분비나무거리의 향쪽으로 쪽 줄어서 제 모양을 뽐내는 특색있는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 웅장미와 립계미, 조형미를 다 갖춘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백학이 날아들듯 추녀를 들고 조선식건축미를 자랑하는 배개봉국수집,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준다는 천지연...
어제 삼지연뿐이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는 물론 내내나 혁명전통교양의 박물관으로 전변되고 조국방방 방방곡곡에 융촌도시, 사회주의건설, 인민의 웃음꽃 만발하는 행복의 락원이 솟아났다.

10대의 그 시절에 오솔길조차 변변치 않은 천고의 밀림속을 헤치시며 걸으신 백두의 강행군길이 있어 오늘의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설수 있었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선 때에도 여기 백두산을 찾으시여 성지의 눈보라를 맞으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실 신념과 의지를 억척으로 굳히신것이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백두의 장성위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사연깊은 주제 102(2013)년 삼지연의 강행군길에 서면 누구나 느낀것이다.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듯 사나계

몰아치는 백두의 눈보라에서 파간한 공격정신으로 만났을 맞받아 뚝고나 커머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자들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 백두산형의 기질을 꺾을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디다. 주제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우리 식대로 길을 개척해나가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의 정당성은 미래가 증명할것입니다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엄숙하신 선언이 력사의 메아리되어 어떻게 울려나갈까.

백두산바람으로 쇄파-설레이는 천고의 밀림이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진감하던 어머니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이 담긴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야 너를 빛내리》의 장중한 선율을 어떻게 소리쳐 전하는가.

우리의 백두산위인들께서는 혁명의 목적도 본질도 결과도 모두 인민의 행복을 꾀꾸우는데 두신 회세의 명도자입니다. 우리 당의 깊고도 역센 력사적전위인 백두의 혁명전통이 주제사상, 선군사상을 생명수로 하여 가꾸는 풍만한 열매는 다음이 아닌 인민의 행복이다. 그래서 백두산군에는 그 어느것이나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전설들로 수놓아져있는것이다.

삼지연주민들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백두산을 찾으실 때마다 부추시던 어머니장군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있는 소중히 수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혁명의 시인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 동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 그 거룩한 자욱마다에서 얼마나 세차게 뚫고있는것인가.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찾으면 10대의 시절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백두산을 떠날때는 기둥이 되라는 간곡한 당부를 담아 그이께서 취해주시신 사람의 조치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준다.

50여년전 고풍함이 기나긴 밀림의 밤을 쫓고 산짐승들의 울부짖음만이 수림속정적을 깨치던 귀틀집에서 우리 장군님과 마주앉았던 립산마을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기울어진 따뜻한 어머니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리시었던 배개봉국수집에서 삼지연문화회관,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비롯한 곳곳마다에 소중히 걸터앉았다.

삼지연군의 어느 집에서나 삼지연군에 또 오시겠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서는 삼지연군 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주제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를 앞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진과 더불어 력사적인 삼지연의 강행군길

군길이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삼지연주민들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삼지연못가를 찾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을 다녀가신 후 1970년대 주제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가 펼쳐지던 때를 추억하게 하는 노래 《삼지연의 새벽길》의 은은한 선율이 그리움의 발걸음을 저도르르게 이곳으로 향하게 한다는것이다.

은 나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진 삼지연의 새길들을 마음속으로 걸으며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주제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있음을 크나큰 민족적근거와 자부심에 넘쳐 쾌부로 절감하고 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관망하시며 걸으시던 삼지연의 새벽길을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과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려 삼지연의 강행군길로 이어가고계신다. 삼지연에서는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조선혁명의 혈통이 과연 어느분들에 의하여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확증하는 백두산!

백두산을 주름잡으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신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변색도 퇴색도 없이 후손만대에 전해가려고 백두산은 흰 머리를 높이 쳐든채 삼천리를 굽어보며 세월의 풍상에도 꺾이지 않는듯하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놓으신 백두의 행군길의 계속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으로의 강행군길!

그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장서서 파간히 헤치신 강행군발걸음을 따라 온 나랴가 용약 펼쳐나가고있다. 천만의 심장이 이 길에서 백두의 넘으로 불타오르고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투쟁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50여년전 고풍함이 기나긴 밀림의 밤을 쫓고 산짐승들의 울부짖음만이 수림속정적을 깨치던 귀틀집에서 우리 장군님과 마주앉았던 립산마을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기울어진 따뜻한 어머니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리시었던 배개봉국수집에서 삼지연문화회관,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비롯한 곳곳마다에 소중히 걸터앉았다.

삼지연군의 어느 집에서나 삼지연군에 또 오시겠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서는 삼지연군 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주제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를 앞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진과 더불어 력사적인 삼지연의 강행군길

군길이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삼지연주민들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삼지연못가를 찾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을 다녀가신 후 1970년대 주제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가 펼쳐지던 때를 추억하게 하는 노래 《삼지연의 새벽길》의 은은한 선율이 그리움의 발걸음을 저도르르게 이곳으로 향하게 한다-는것이다.

은 나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진 삼지연의 새길들을 마음속으로 걸으며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주제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있음을 크나큰 민족적근거와 자부심에 넘쳐 쾌부로 절감하고 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관망하시며 걸으시던 삼지연의 새벽길을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과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려 삼지연의 강행군길로 이어가고계신다. 삼지연에서는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조선혁명의 혈통이 과연 어느분들에 의하여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확증하는 백두산!

백두산을 주름잡으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신 우리 원수님의 모습을 변색도 퇴색도 없이 후손만대에 전해가려고 백두산은 흰 머리를 높이 쳐든채 삼천리를 굽어보며 세월의 풍상에도 꺾이지 않는듯하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놓으신 백두의 행군길의 계속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두산으로의 강행군길!

그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장서서 파간히 헤치신 강행군발걸음을 따라 온 나랴가 용약 펼쳐나가고있다. 천만의 심장이 이 길에서 백두의 넘으로 불타오르고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투쟁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50여년전 고풍함이 기나긴 밀림의 밤을 쫓고 산짐승들의 울부짖음만이 수림속정적을 깨치던 귀틀집에서 우리 장군님과 마주앉았던 립산마을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기울어진 따뜻한 어머니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리시었던 배개봉국수집에서 삼지연문화회관,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비롯한 곳곳마다에 소중히 걸터앉았다.

삼지연군의 어느 집에서나 삼지연군에 또 오시겠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서는 삼지연군 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주제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를 앞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진과 더불어 력사적인 삼지연의 강행군길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설계도를 펼쳐준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주제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에 대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불꽃이 사회주의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인 불길로 세차게 라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미래를 열어나가는 척후대로

건설전진공업성 부상 함희복은 건설부문일군대강을 참가자들이 예로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서한의 자자구구를 새길수록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하여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이 세상만복을 다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안겨온다.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은 올해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등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편이여 일떠서는 현실을 체현하고 또 오늘의 의의깊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에 참가하고보니 우리 당이 펼쳐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설계도가 어떤것인가를 심상깊이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건설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가까운 기간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피력하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서한에서 설계가들은 설계책에서 문명국의 매일이 그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서한의 자자구구를 새겨볼수록 선군조선은 문명국의 높이에 하루빨리 올려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는 당의 풍속에서 자라난 세대 설계가이다. 오늘의 시대적사명감을 더 깊이 자각하고 앞으로 건설설계에서 문명국의 매일을 남기지 않으려는 열의가 되었다.

우리가 짚는 점 하나, 굳은 선 한에서부터 문명한 조국의 매일이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건축을 하나를 설계해 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보다 세롭고 발전적인것을 더 많이 창조하였다. 그러기 위해 매 대상의 용도와 특성을 유계 대상된 세계적 판도에서 특색있게 설계되도록 피터계 사색하고 탐구하며

우리가 짚는 점 하나, 굳은 선 한에서부터 문명한 조국의 매일이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건축을 하나를 설계해 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보다 세롭고 발전적인것을 더 많이 창조하였다. 그러기 위해 매 대상의 용도와 특성을 유계 대상된 세계적 판도에서 특색있게 설계되도록 피터계 사색하고 탐구하며

기념비적 건축물을 세계적 높이에서

평양도시설계연구소 리은철은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판점에서 설계가들이 지닌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서한에서 설계가들은 설계책에서 문명국의 매일이 그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서한의 자자구구를 새겨볼수록 선군조선은 문명국의 높이에 하루빨리 올려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는 당의 풍속에서 자라난 세대 설계가이다. 오늘의 시대적사명감을 더 깊이 자각하고 앞으로 건설설계에서 문명국의 매일을 남기지 않으려는 열의가 되었다.

우리가 짚는 점 하나, 굳은 선 한에서부터 문명한 조국의 매일이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건축을 하나를 설계해 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보다 세롭고 발전적인것을 더 많이 창조하였다. 그러기 위해 매 대상의 용도와 특성을 유계 대상된 세계적 판도에서 특색있게 설계되도록 피터계 사색하고 탐구하며

우리가 짚는 점 하나, 굳은 선 한에서부터 문명한 조국의 매일이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건축을 하나를 설계해 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보다 세롭고 발전적인것을 더 많이 창조하였다. 그러기 위해 매 대상의 용도와 특성을 유계 대상된 세계적 판도에서 특색있게 설계되도록 피터계 사색하고 탐구하며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실천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최현철은 건설현장지휘부 시공분과장 권영래는 이렇게 말하였다.

시공은 건설의 기본공정이다. 여러 건설부문과 마찬가지로 청천강개단식발전소건설에서도 설계와 함께 시공을 잘 하여야 공사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모든 건축물들을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다.

우리는 서한에 제시된대로 건설설비와 기공구의 현대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 노력중이다. 리용을 방법론있게 하면서 시공의 전문화와 공업화, 현대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방대한 량의 공사과제들을 본래있게 해체하겠다. 특히 실력전, 두뇌전의 불길같은 건설설비의 특성에 맞는 기발하고 독특한 공법들을 대담하면서 도 통이 깨 받아들이며 시공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

우리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구조가 단순한 선동구조가 아니라 모든 건설자들이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며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깨끗한 량심과 실천의 구조가 되도록 함으로써 청천강을 하루빨리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켜나가겠다.

평양약학대학공공작업반장 리원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보니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내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갖가지 건설생산에서 위훈

을 펼쳐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겠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른것 다 바쳐 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부강조국건설업념을 잊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대기념비적건축물건설에 갖가지 질좋은 건축품을 제때에 생산보급해주기 위해 우리 공장의 로동계급은 분발하고 또 분발할것이다.

우리는 건축품의 질적수준을

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겠다.

높은 민족적자존심으로 세계를 디디고 올라가겠다는 배짱을 지니고 모든 건설대상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수준, 세계적높이에 이른 기념비적창조물로 되게 하겠다. 모든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겠다.

우리는 건축품의 질적수준을

우리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구조가 단순한 선동구조가 아니라 모든 건설자들이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며 인민들과 후대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깊이 학습하고있는 건설전진공업성의 정무원들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각지 당조직들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는 억척이다

성, 중앙기관, 도, 시, 군당 조직들에서

인민이 분노하고있다. 민심이 혁명의 원수들을 단죄하고 있다.

어디라고 감히 쓸라락질, 파연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의 성배를 위를 쏘수 있다고 생각 하였던 말인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가슴을 치며 한사랄같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동지가 되자!

천만군민의 심장에서 울려나 오는 이 맹세와 더불어 우리의 성세는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결사옹위 정신은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사상적 전통특질이며 무한대한 정신력의 근본핵입니다.》

력사의 면류관을 해쳐온 우리 혁명이다.

배앗겼던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열전도 있었고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달려드는 미제와의 간고한 싸움도 있었다. 사회주의보루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합세력과의 력사에 류태없는 총포성염은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파와 사대로 얼룩져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양모로 책동하면서 우리 당을 공격해나섰던 혁명의 배신자들,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땀을 꾸며 대오안에 위를 쏘려던 음모가들...

혁명의 더러운 배신자, 음모자들의 목적은 하나, 혁명의 령도권을 틀어쥐고 저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망상이었다.

어찌 용서할수 있었으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적들도, 혁명의 간판을 들고 혁명을 반대한 원수들도 단호히 징벌하였다.

그 나날에 신장이 새겨졌다. 수령결사옹위에 혁명의 승리와 조국과 민족의 운명,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이번호에 적발속청된 현대판공파파리들의 책동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력사의 이 진리를 다시 새겨안게 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양양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에 맞게 조직적 지시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도, 시, 군당 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실은 당보 독보사업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작업반, 직장단위로, 당세포, 부문당위원회단위로 진행되는 학습에서는 장성택일당의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와 그것이 우리 혁명에 끼친 해독성과 반동성이 구체적으로 분석인식되고있다. 어떤자들이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에 말려들게 되는가에 대한 토론도 강화되고 있다.

수매량정성 조급방식서 리철동무는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갖게 되는 교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수령앞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뒤에서는 땀을 흘리는 행위를 막고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배은망덕이던 인간쓰레기들만이 지지불수 있는 최대의 반혁명행위입니다. 그런 반동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습니. 현대판공파인 장성택일당의 말로가 이것을 독특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개천시장 책임비서 김일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개별적사람에 대한 환상과 아부야행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그리고 자기 혈육들을 배반하는 첫걸음이며 부정부패와 불건전한 생활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할 사업과 생활의 독사라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가 전당의 일군들과 당원들을 새롭게 각성, 분발시키고있다.

전당적으로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적덕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사업이 실도있게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수놓아져있는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들을 적극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와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김책, 허담, 연영록, 박송봉동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이 실속있게 벌어지고있다.

도, 시, 군핵일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속에서는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순결한 충실성의 정신과 당정책결사판현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일군들과 당원들의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있다.

장성택일당의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에 격분한 상인세멘트련합공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높은 세멘트생산성으로 당중앙을 용위하기 위하여 한사랄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건설의 대명령기를 열어나가길

들과 당원들을 새롭게 각성, 분발시키고있다.

전당적으로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적덕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사업이 실도있게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수놓아져있는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들을 적극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와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김책, 허담, 연영록, 박송봉동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이 실속있게 벌어지고있다.

도, 시, 군핵일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속에서는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순결한 충실성의 정신과 당정책결사판현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성의 열도는 그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의 위력을 더욱 배배해주고 있다.

장성택일당은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도도히 굽이쳐오르는 선군혁명대화에 일시적으로 떠돌았던 거품이 불과하다. 장성택일당이 적발속청된으로서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 순결해지고 일심단결의 위력은 배배해졌다.

혁명의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는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억척이다.

본사기자 림 현 숙

혁명적신념의 강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지금 치솟는 격분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생각만 해도 감서려친다. 한중도 못되는 종파의 파리가 감히 당에 도전해나섰다. 이런자들은 만리시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아예 이 땅에 묻힐 곳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몇마리의 쥐새끼때문에 큰 산이 무너지는 법은 없다. 그러나 반당반혁명적종파분자들의 행위는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앞에서는 당을 받드는척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 땀을 흘리는 자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계급의 높은 칼을 어깨에 버티어 다니는 종파의 독소가 약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의 목소리이다.

거꾸로 매달아놓아도 뒤집어놓아도 오직 수령만세만을 부르고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힌다고 해도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원단결성은 추후도 변함없다.

◇ 우리 당은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확고부동한 불패의 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로동계급의 당건설사업은 단결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웠지만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참다운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여 실패와 좌절을 겪은 실례가 적지 않다. 특히 령도의 대가 바림 때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확고히 세우지 않게 되면 변절자, 우연분자, 아첨분자들이 나타나 당을 타락하고 혁명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게 된다것이 사회주의운동사가 남긴 교훈이다.

근 70성세를 헤아리는 우리 당의 장구한 력사는 백두의 혈통을 명맥으로 틀어쥐고 대를 이어

어 쫓곳이 빛내여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오늘 우리 당이 위력하고 선군혁명이 백승의 한길로 역세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은 바로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어떤 절해고도에도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기때문이다. 수령, 당, 군대, 인민이 혁명적신념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어야 한다.

전후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 태생적머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종파분자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이제고 떠돌고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으니 일일습니다. 그대도 무리하시가지 종파분자들이 이기적습습나까? 넘어마시구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어야 한다.

전후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 태생적머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종파분자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이제고 떠돌고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으니 일일습니다. 그대도 무리하시가지 종파분자들이 이기적습습나까? 넘어마시구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 할랄방 바린대도 억공 분대도 우리의 심장을 당단만 있다.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며 그 령도만 받들어가리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상과 뜻으로 따르고 만드는 신념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제일생명으로

각지 당조직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온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충실할 맹세로 가슴 불태우도록 하고있다.

평양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며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의 투쟁력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체득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어려운 시련의 시기마다 머리를 쳐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어떻게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였는가를 잘 알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높이 모시고 따를 신념의 맹세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념과 의지를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력사적으로 벌려온 반공파투쟁 자료와도 결부하여 해설해충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충실할 맹세로 가슴 불태우도록 하고있다.

평양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며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의 투쟁력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체득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어려운 시련의 시기마다 머리를 쳐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어떻게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였는가를 잘 알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높이 모시고 따를 신념의 맹세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념과 의지를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평안북도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며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의 투쟁력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체득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어려운 시련의 시기마다 머리를 쳐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어떻게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였는가를 잘 알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높이 모시고 따를 신념의 맹세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념과 의지를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빨간 결의에 넘쳐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청년대학생들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스위스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베 른

스 위 스 련 방 대 통 령 디 디 어 부 르 크 할 레 르 각 하

나는 당신이 스위스련방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102(2013)년 12월 6일 평 양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김일성사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조직적지시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을 발동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당을 따라나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지금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청년동맹원들의 믿음직한 동맹원들을 당을 따라나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대한 보급사업도 활발히 벌려내고 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청년동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열렬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내령중앙위원회에서도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모든 내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충실한 선군시대 여성투사로 더욱 역세게 준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사회주의건설사업에 힘있게 뛰어들고 있다.

직중중앙위원회에서도 장성택일당의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세차게 끓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가 나오자 모든 부서들에서 일제히 보도가 실린 《로동신문》독보를 진행하여

대고조성과로 우리 당을 받들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가 실린 《로동신문》이 도착하자 일제히 부서, 당세포단위로 독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대고조성에 들어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있게 해설하는 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평량주철직장의 로동자들에게 들어간 평안북도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책을 의식적으로 배반하고 위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오르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명에 불복하는 반혁명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 사실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지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가 실린 《로동신문》이 도착하자 일제히 부서, 당세포단위로 독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대고조성에 들어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있게 해설하는 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평량주철직장의 로동자들에게 들어간 평안북도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책을 의식적으로 배반하고 위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오르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명에 불복하는 반혁명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 사실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신념의 노래를 영원한 주제가로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대한 보급사업 활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양심으로 받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철같이 뭉치며 평범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어야 합니다.》

수도의 당조직들이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 대한 해설 및 보급사업을 기동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김정숙평양시공작당위원회에서는 노래가 실린 《로동신문》을 받자마자 당일군들이 먼저 노래를 배우고 대중속에 보급하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라

...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끝까지 완수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우리 당대렬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들을 적발속청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될 시기에 나온 이 노래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본사기자 장 철 범

천화력발전소 조급당원회의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

천화력발전소 조급당원회의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당신께 충실하라

...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끝까지 완수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우리 당대렬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들을 적발속청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될 시기에 나온 이 노래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본사기자 장 철 범

천화력발전소 조급당원회의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양양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에 맞게 조직적 지시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도, 시, 군당 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실은 당보 독보사업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양양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에 맞게 조직적 지시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도, 시, 군당 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실은 당보 독보사업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천화력발전소 조급당원회의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양양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에 맞게 조직적 지시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도, 시, 군당 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실은 당보 독보사업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양양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에 맞게 조직적 지시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도, 시, 군당 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실은 당보 독보사업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주체건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건축이다.》 김 정 일

시대를 뒤흔든 비상한 건설속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과 능력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전진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12월의 언덕에서 조국방위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바라보고있다.

보통속도로는 1년동안에 업무도 내지 못할 거창한 건설의 대작전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비상히 높은 목표들이 세워졌던 정점마다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상의 더운 피, 고귀한 땀이 진하게 스며들었다. 붉은기를 역척같이 꽃아놓았다.

과연 무엇이 그 모든 창조물들을 강위력한 힘으로 떠받들었는가. 세월을 주름잡고 시대를 뒤흔든 비상한 건설속도에는 어떤 정신력이 비껴있는가.

《마식령속도!》

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 찬만군민에게 보내신 호소문은 우리 조국방위에 일떠서 있어 보지 못한 건설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게 한 력사의 신호총성이었다.

한두개도 아닌 수십개의 건설 전투장소에서 동시 울려퍼졌던 총공격전의 우렁찬 함성은 수령의 호소에 찬만군민이 신상의 그 웨치는 《달았습니다!》의 대합창과도 같았다.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는 류체없는 건설의 대격전이 파죽이 번져오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건설자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남들같은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방대한 건설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기본적으로 끝속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단순에의 공격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서고 조국해방전쟁참전현사묘가 훌륭히 꾸려진으로써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빛나게 장식되었다.

은하과학자거리건설을 맡은 인민군건설자와 건설자들은 공사를 전격적, 립체적으로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21개 호동에 1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편의봉사시설, 학교, 공원들을 7개월동안에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의 중요대산건설장소에서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류경구강병원, 문수기능회복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었다.

세계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만한 이러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일떠섬으로써 주체건축의 본보기, 표준이 창조되고 건설의 대변영여로 향한 리정표가 마련되었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남들보다 더 멋있게, 더욱 훌륭하게 창조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의 건축가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드림없이 실현하는것을 창조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도 그 성격과 사명, 용도에 어울리도록 특색있게 하였으며 시대의 기상이 맥박치고 인민의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조각과 장식, 벽화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설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건설자들은 시공에서 설계의 요구와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고 건설대상을 세공품처럼 정교하게 다듬어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으로 일떠세웠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건축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

단 1년동안에 세월을 주름잡으며 펼쳐진 주체건축발전의 오늘도 좋다. 하지만 우리의 찬만군민이 보다 확실성있게 바라보는것은 주체건축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래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시대를 뒤흔든 비상한 건설속도가 계속 창조될것이며 우리의 건축예술은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현대미와 자연미의 결합

세계적인 문물이장으로서의 체모를 파시하여주는 이러한 현대미는 독특한 자연미와 결합되어 더한층 부각되고있다.

사람들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건축공간, 자연과 잘 조화된 건축공간을 더 좋아한다. 자연과 건축공간을 잘 조화시키는것은 사람들에게 보다 정서적이며 활동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준다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속도 및 체험함에 있어서 올해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이나 미림승마구락부는 또 하나의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한낱에도 이른 새벽, 깊은 밤

에도 건설장을 찾고있으며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이 있어 문수물놀이장은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위에 솟아오르게 되었다.

물놀이장에는 여러가지 물미그림대와 수조들로 이루어진 야외물놀이장과 함께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 인민들이 사계절 물놀이를 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것하여 몇대밖에 안되는 물놀이시설들이 문수물놀이장에는 10여대나 되며 수조는 수십개나 된다.

세계적인 문물이장으로서의 체모를 파시하여주는 이러한 현대미는 독특한 자연미와 결합되어 더한층 부각되고있다.

사람들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건축공간, 자연과 잘 조화된 건축공간을 더 좋아한다. 자연과 건축공간을 잘 조화시키는것은 사람들에게 보다 정서적이며 활동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준다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속도 및 체험함에 있어서 올해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이나 미림승마구락부는 또 하나의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문수물놀이장이나 미림승마

구락부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흙으로 쌓아올린 인공산도 있고 모양산과 금강산, 철보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형상한 인공바위산도 있다. 인공못과 인공폭포도 있다. 그런가하면 바위산 밑에는 동글도 나왔다. 동굴안에 있는 여러 동물조각들은 마치 살아있는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자연재광으로 하여 맑고 푸른 하늘이 그대로 지붕이 된것은 실내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은 야외에서와 별로 다름이 없는 감정을 받아안는다. 철썩이는 파도소리와 함께 실지 파도와도 같은 물결이 쉬임없이 오가는 파도수조에까지 몸을 척 잠그면 바다물속에 있는것 한 기분이 절로 들게 된다.

실내물놀이장에 꾸려져있는 자연동물들을 방목해 하는 휴식터는 또 어떠한가.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이러한 인공산과 바위물, 폭포물, 잔디밭들과 휴식터들, 여러가지 조각들과 불장식, 자연재광조각과 파도, 파도소리 등과 같은 모든 요소들은 현대적인 문물이시설들과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황홀함을 자아내고있다.

이런 대규모의 종합적인 문물이장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만 건설될수 있는 창조물이다.

특색있는 설계, 뚜렷한 얼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건축창작은 창조되는 건축공간이 보다 새로운 색채를 표현하고 특색있는 맛을 주도록 모든 구성요소를 해결하고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건축물들은 어느것이나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안겨주고 정서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파악연구기조로서의 체모를 느낄수 있다.

특히 휴식터는 척 바라보기도 버섯을 연구하는 단위라는 표시가 인격적으로 설계되어있다. 해를 가리울수 있게 버섯모양의 지붕을 형성하고 아래에 원형으로 의자를 만들어놓은 휴식터는 아주 특색있다. 마치 꼭짓한 세송이의 버섯이 땅위에 들어난것처럼 되어있는 형상적세부는 새로운 색채와 대상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주는것으로 하여 건축물전반의 품위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대상의 특성과 새로운 색채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철학사상에 맞게 훌륭히 건설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특색있게 설계된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버섯재배장은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조로서의 자기의 얼굴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상의 특성과 새로운 색채가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있는것이다.

다양한 구성요소와 구성단위들의 이와 같은 통일적인 편파는 건축공간전반의 조형예술적형상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승마구락부의 모든 건축물들은 그 조형예술적특성이 울창한 수림을 편상시켜주는 독특한 주제에 의해 확연히 살아날뿐 아니라 말을 타고 주로를 달리는 사람들, 야외판람대, 천막휴식장, 인공산, 인공못에서 말라기를 관람하거나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승마장투유의 정서를 안겨주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조형에 예술적형상은 세계적수준의 승마구락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측면이다.

파악연구기조로서의 체모를 느낄수 있다.

특히 휴식터는 척 바라보기도 버섯을 연구하는 단위라는 표시가 인격적으로 설계되어있다. 해를 가리울수 있게 버섯모양의 지붕을 형성하고 아래에 원형으로 의자를 만들어놓은 휴식터는 아주 특색있다. 마치 꼭짓한 세송이의 버섯이 땅위에 들어난것처럼 되어있는 형상적세부는 새로운 색채와 대상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주는것으로 하여 건축물전반의 품위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온화하고 정서적인 환경의 조성

류경구강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다에는 구강상식 소개판들이 걸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에 이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상식소 개판을 걸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그 위치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병원안에는 삼정도 있다. 여기서는 인민들의 구강위생에 도움을 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있다.

어린이구강과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저모르게 탄성을 터친다.

동심에 맞는 벽지며 이채로운 천정조명등은 온화하면서도 정서적인 환경을 느끼게 해준다. 여러가지 유희시설들이 갖추어진 어린이놀이장에서 아이들은 병원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다 웃고 뛰여난다.

오늘날 이 땅에 일떠서고있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다 그러하지만 의료봉사기조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는 사회주의문명국의 패일을 비추어주는 또 하나의 자용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택지구와 살림집건설의 표준, 본보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건축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새롭고 독창적인 건축형식을 부단히 탐구하는것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적지향과 요구를 실천에 구현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올해에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주택지구, 살림집건설의 훌륭한 표준, 본보기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개별적인 아파트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건설해야 하는가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면 은하과학자거리는 그러한 수준의 살림집들, 여러가지 공공건물들과 공원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결합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고 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외형부터 꾸려져있어 실내라기보다는 야외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건축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새롭고 독창적인 건축형식을 부단히 탐구하는것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적지향과 요구를 실천에 구현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올해에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주택지구, 살림집건설의 훌륭한 표준, 본보기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개별적인 아파트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건설해야 하는가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면 은하과학자거리는 그러한 수준의 살림집들, 여러가지 공공건물들과 공원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결합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고 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외형부터 꾸려져있어 실내라기보다는 야외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준다.

조형예술적형상과 건축물의 품위

일반적으로 건축은 여러가지 구성요소와 구성단위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할수 있다.

올해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은 어느것이나 활달했어 자기의 독특한 미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정반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이 건축물들을 이루는 여러가지 구성요소들과 구성단위들이 구색이 맞게 조형예술적으로 잘 다듬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있는것과 크게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건축예술은 사람의 사상미학적감정이나 지향, 객관적현실을 조형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반영한다.》

미림승마구락부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여러 승마주로들과 건물들, 공원구역과 인공산, 인공못 등 그 하나하나의 자기의 얼굴이 뚜렷이 비친 설계에 기초하고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이 모든 구성요소와 구성단위들이 호상 편파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마치도 살아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지는것이다.

각이한 형태와 크기의 기암괴석들이 여기저기에 자리잡고있고 인공폭포가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인공산구역에서 서면 실지 새소리, 물소리가 들려오는 자연속에 있는듯 한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인공산에 자리잡고있는 정각



문수물놀이장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류경구강병원의 중앙홀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

본사기자 찍음

